

2008 새해설계 ⑨

포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영찬

23년 전통의 농산물 공판장 고령화 농가에 실익 제공

조합원 위해 벼 육묘상자 29만8천개 전량 교체사업추진

"2007년도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업인과 농업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한 해였으며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한·미, 한·EU간 FTA의 협상으로 농업인은 물론 국민경제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조합원의 실익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투명한 경영과 예산의 절감을 통한 건전결산을 이루었습니다."

포천농업협동조합 양영찬(사진) 조합장은 "2008년에는 경기회복이 다소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 농민조합원의 농산물시장의 개방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환경은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농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치열한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투명한 경영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영농 생산비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포천농업협동조합은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지난해말 현재 3천 167명의 조합원(여성조합원 418명 포함)과 1만3천 46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8명, 감사 2명으로 임원 12명과 직원 114명(정규직 73명, 비정규직 41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자산은 2천692억원이며 총 부채는 예수금 2천153억원을 포함 2천483억원이며 자기자본은 209억원으로 출자금은 5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 1인당 평균 161만원이다.

2007년도 포천농업협동조합은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으로 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았고 농촌사랑운동본부로부터 1사1촌상을 수상했으며 중앙회로부터 클린뱅크인증을 받기도 했다.

2008년 특색사업으로 포천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자녀장학금으로 대학생 78명에게 50만원씩 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자녀 학자금으로 초등학교 40명에게 각 10만원씩을 전달하고 중학교 12명에게 2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고등학교 10명에게 3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벼 육묘상자 교체사업을 통해 흙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육묘상자는 1개당 900원으로 29만8천개 2억6천850만원이 소요됐는데 조합 40%, 포천시 40%, 농가자부

담 20%의 사업비로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육묘상자를 신형 육묘상자로 전량 교체했다. 구형 육묘상자는 150원에 다시 구매하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은 30원 정도에 불과해 큰 부담 없이 육묘상자를 교체했다.

포천농업협동조합은 1985년에 개장한 농산물공판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탁취급물량을 확대하고 품질개선을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4월 20일 개장해 12월15일에 폐장할 계획이다.

농산물공판장은 중매인 40여명이 등록돼 있고 경매사 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산지직파경매장으로 고령화된 농가들에게 제값 받아주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포천농협은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농민수산물 품부 협력지원사업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사업과 가사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도우미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일을 보기 어려울 때 1인당 10일씩 영농도우미가 대신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연인원 130명에 450만원이 투입됐다.

가사도우미사업은 고향주부모임 21명으로 구성된 도우미로 23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매월1일 반찬 및 청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인원 2천550명 봉사에 나섰다.

양 조합장은 조합원 실익을 통한 봉사 경영목표로 삼아 조합원에게 이익배당은 물론 비료보조, 상토, 농약, 농기구 보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농협 이용을 많이 한 조합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양 조합장은 "농협과 조합원이 일체감을 갖고 공판장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조합원의 전이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매월 조합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친화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신문은 우리고장의 신문으로는 알찬 신문으로 지역정보제공의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농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신청 접수

4월30일까지 관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포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08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대상은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로 재무제표 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를 양호하며,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이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홍보물에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

용권 부여 및 국내의 마케팅사업,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 참가시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포천시 소재 기업체는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cs21.net) 새소식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접수기한 내에 포천시청 기업지원과(031-538-2285) 및 포천상공회의소(031-535-0072)로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승환 기자 form65@paran.com

포천시 민간계약 대행제도시행

주민요구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 시 계약대행

포천시는 지역주민들이 시설공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계약대행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시에서 대행하는 민간계약 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중 시설공사 1억원 이상 및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이 시에 계약대행을 요구하면 시에서 직접 계약 및 시공감독·물품검수 등을 대행하는 제도이다.

시는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마을회 및 단체 또는 주민들이 직접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예방

및 적정 사업비지출 등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량시공업체 선정, 준공후 하자담보 등 직접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계약 대행에 희망하는 단체나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회계과에 계약대행을 신청하고 대행사업비용은 공사비 등 직접 경비와 대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접경비를 납입하면 시에서 계약 및 준공처리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허승환 기자 form65@paran.com

포천시, 중소기업 후견인제 추진

중소기업 월 1회 이상 방문, 애로사항 해결

포천시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후견인제는 관내 등록공장 40개소에 대해 실과소 주무담당 및 기업지원과 지정 공무원이 매월 1회 이상 기업을 현장 방문해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접수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요구사항 가운데 현장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관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처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며, 시

차원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업체를 대신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 주변 주민들과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도 후견인 담당공무원이 중재자로 나서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들이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애로사항을 조기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허승환 기자 form65@paran.com

행복한 보듬이야기 27

삶의 울타리에 대한 생각

이슈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밭을 물려주었다. 아들이 포도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가 포도밭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울타리를 보고 말했다.

"열매도 맺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군. 아버지는 왜 이런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 아들은 열매도 맺지 않는 쓸데없는 울타리를 치우며 아버지를 원망했다. 울타리가 없어진 포도밭은 사람들과 짐승들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고, 결국 포도나무들은 예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부 엉망이 되어버렸다. 아들은 그때서야 포도밭을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현명함을 존경하게 되었다.

보험은 바로 이러한 울타리라 할 수 있다. 보호 보험은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우산이라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뒤 되지 않았는데 해

악하고 다른 상품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과 같은 장기 전략 상품은 손해가 매우 크다.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원금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으면서 수익률이 근접할 수 있다. 보통 14년 정도 지나면 보험의 수익률이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은 단순히 작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만기 시 원금은 나오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고객들이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금에 대한 미련이 강하다. 그래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환급금 보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한 대비책이므로, 만기 환급형도 좋지만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받기 원하는 경우라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순수 보장형으로 온 가족의 의료비 실손 보장과 남편의 사망 보장 강화를 하고, 납입기간을 조절하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다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노후에 대비한 연금 가입에 더 보탬이 된다. 저축과 투자와 보장까지, 이것 또한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의 장점과 생명보험의 장점을 잘 살펴서 적절한 보험료 지출과 저축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 보자.

보호해야 할 포도보다 값싼 대가를 지불하거나 포도와 구분이 어려운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 포도

밭을 지키는 울타리는 필수불가결하지만 울타리는 울타리일 뿐 포도가 될 수 없는 법이다. 울타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포도의 수확량과 포도밭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그 포도를 지켜 줄 울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또한 가장 중요한 포도를 잃고 말 것이다.

보험이란 참 묘한 습성을 창의해 나간다. 막상 가입을 하면 괜한 공돈이 나가는 것 같고, 반면 가입하지 않고 있으면 괜히 아플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실제로 사고가 나면 땅을 치며 후회를 하기도 한다. 불확



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 바로 보험이다. 이미정 코인스 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산업안전사고 예방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제정보 서비스 중 조회와 계산 사이트 내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패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산세과 (031-670-4462~4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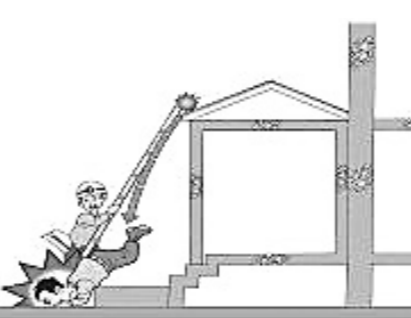
아파트 출입구 경사지붕 단부에서 추락

▶재해발생 개요 •2006년 1월 20일(금) 00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피재자가 아파트 현관 출입구로 이동하여 이동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통해 경사지붕에 올라가 경사지붕 처마부분의 마감재에 부착된 천테프 쪼끼끼를 제거하고 내려오던 중 실족하여 3m 아래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추락하여 병원에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 또는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나 미실시.

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히 착용하여야 함.

▶중재대책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조치 철저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



자가 이동 또는 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경사지붕 단부에 안전간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히 착용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626-6091)

국민연금 Q&A

사업장사용자에 대한 체납사실통지 폐지와 가입기간 불인정

Q 사업장 사용자입니다. 고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아니고 경기가 어려워져 미납이 되었는데 사용자에 대한 체납사실통지도 폐지하고 가입기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너무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A 체납사실통지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인정이 안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월급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원천공제 되었는데, 미납으로 인하여 가입기간 인정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또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사업장의 사용자에게까지 체납사실통지와 그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부여하

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Q 저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체납사실통지와 그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뜻하는 것으로,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아울러 「사업경영자」로서 회사의 제반사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미납에 따른 통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